칼럼 Column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며

출협 60년, 출판계 60년

올해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지난 1947년, 출판산업의 토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회 전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판 및 문화 발전을 위해 희망의 첫발을 내딛고 출판인들과 더불어 60년의 역사를 다져온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후세들을 위해 더 나은 출판환경을 마련하고자 애쓰신 출판 1세대 분들을 비롯하여 현재 출판현장에 몸담고 있는 출판인들이 계셨기에 출협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출판문화 향상을 위한 기름진 토양을 마련하고, 세계 10대 출판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시기를 출협 회장으로서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의 시대, 지식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협은 올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출판 국가로의 도약, 확고한 출판 인프라 확립과 출판의 국가 사회적 인식 제고, 독서문화의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출협의 도약과 출판문화 향상의 계기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2008 IPA 서울총회, 세계적 책 축제로

지난 60년 동안 무엇보다 출판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면 한국 출판계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에는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 회장국으로, 2001년에는 국제출판협회(IPA) 상임이사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책과 문화의 저력을 보여줌으로써 출판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류열풍을 출판 한류바람으로 이어가는 등 전 세계 출판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 출판인의 문화 올림픽인 국제출판협회(IPA) 총회가 70여 개 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는 '책의 길, 공존의 길'을 주제로 세계 출판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총회에 참가한 출판계, 문화계, 지성계, 언론계를 주도하는 관계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의 장으로 우리 출판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협은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출판의

박 맹 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역동성과 문화적 다양성, 독창성을 자랑스럽게 선보일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출판의 국가 ·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도록 2008 IPA 서울총회를 세계적 책 축제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에 도서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서문화 확산 및 출판 인프라 구축

한편 지난 연말 출판계 숙원 사업의 하나인 「독서문화진흥법」이 독립 법제로 분리, 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 · 학교 · 직장에서의 독서진흥 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판계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출협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세계 초유의 독서운동인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지난 3월부터 올 12월까지 펼칩니다. 연간 총 7,400가구에 78,000권의 책과 서가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본 캠페인을 통해 거실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키고, 양서가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협은 이에서 더 나아가 도서관 증설 및 장서 구입비 확대,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출판진흥기구 설립 추진, 저작권법 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출판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60년이 넘는 연륜을 가진 출협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서관계를 비롯한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도서관계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한결같은 애정으로 출협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